



포장기계산업 시장동향

식품제조업

1. 출하액과 포장기계의 도입상황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은 1992년에 과거 최고인 31조7,361억엔을 기록했지만, 1993년은 축산·수산식품의 소비가 저미하고 또 서늘한 여름의 영향을 받아 청량음료, 주류의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전년대비 약 0.7% 감소한 31조5,237억엔에 그쳤다.

식품제조업의 업계규모는 93년 출하액이 GDP의 6.8%를 차지하고, 이것을 국민 1인당 연간소비액으로 환산하면 25만3,000엔에 달한다.

식품의 출하상황을 품목별로 보면, 1989년부터 1992년까지는 모든 품목에서 안정된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냉동조리식품, 청량음료의 신장이 두드러진다. 냉동조리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여성의 직장진출과 전자렌지 등 조리기계의 보급이다.

식품제조업은 안정된 업계이며, 항상 포장기계 수요의 50% 이상(1992년도-1994년도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장기계산업을 지탱하는 최대의 시장이 되고 있다. 일본의 포장기계산업이 요람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성

장을 지속할 수 있던 것은 식품제조업에 맞는 것이 많고, 식품제조업이 없이 포장기계산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제조에 있어 한 사업소당 포장기계설비 투자액을 보면 1989년은 480만엔, 1990년 540만엔, 1991년 560만엔, 1992년 600만엔으로 순조롭게 증가해 왔지만 경기저미와 서늘한 여름의 영향을 받아 1993년은 530만으로 감소됐다.

2. 앞으로의 시장성

일본의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총인구 1억 2,503만4천명 중, 0~14세가 16.3%, 15~64세가 69.6%, 65세 이상 14.1%가 되고 있으며(1994년 10월1일 현재, 總務廳조사), 201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차지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어떠한 영향을 식품의 소비량에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소비량의 저하 또는 현상유지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냉동조리식품, 청량음료, 면류의 소비 증가가 주목을 모으고 있으며, 여성의 직장진출,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이들 식품의 소비는 확대될 것이라 생각된다. 식품산업은 이미 성숙산업이며, 현재가 피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국민의

건강지향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식품을 비롯한 새로운 식품분야의 출현도 예상된다.

인구의 고령화가 매년 진행되고,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니즈가 점점 다양화되는 가운데 식품제조업에 있어서 대량 생산시대가 되고 포장기계에 관해서도 다품종소량생산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할 수 있도록 되고 있다. 주변환경변화에 대응한 기계의 개발을 이루는 것이 식품산업에 있어서 포장기계수요를 유지, 확대하는 것이 열쇠가 될 것이다.

한편 식품제조업에도 국제화가 진전되고 해외로 진출하는 케이스가 증가한 결과, 1989~1992년도까지는 연간 1.2%~1.3%로 추이돼 온 해외생산비율이 1993년도에 2.4%로 확대, 일본내 포장기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염려되고 있다.

의약·화장품제조업

1. 출하액과 포장기계의 도입상황

의약·화장품의 소비는 불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년 증가돼 출하액은 1989년 6조8,241억 엔에서 1993년에는 원년대비 약 13.1%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품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포장기계설비투자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처 세어로서는 우선 15% 정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의약·화장품제조업에 있어서 한개 사업소당 포장기계설비투자액을 보면, 1989년은 3,570만 엔, 1990년 3,720만엔, 1991년 3,780만엔, 1992년 3,940만엔으로 순조롭게 증가됐지만, 1993년은 3,180만엔으로 감소됐다. 그러나 한개 사업

소당 포장기계설비투자액이 커졌기 때문에 單體機에서도 비교적 고가인 기계와 시스템기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2. 앞으로의 시장성

의약·화장품의 소비는 고령화사회의 도래, 건강지향이 높아짐 등에 따라 안정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신약, 신제품 등의 개발도 기대되기 때문에 포장기계산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안정된 시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의약품은 그 성질상 GMP 또는 바리테이션에 관한 규격에 의해 엄격한 생산·품질관리가 행해지고 있으며, 유저는 이러한 규격을 만족할 수 있는 포장기계만을 도입하고 있다. 화장품업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의약·화장품업계가 국제화로의 대응에 늦음이 지적되고 있는 한편, 생산·품질관리에 관한 규격이 세계공통이기 때문에 해외메이커에 의한 국내 시장으로의 진출은 한창이다. 일본의 유저에게 수입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고도의 포장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일본의 포장기계메이커는 해외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장래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계·전기제조업

1. 출하액과 포장기계의 도입상황

기계·전기제조업의 1993년 총출하액은 41조 4,089억3,000만엔이다. 기계·전기제조업 중 이들 업종이 같은 해의 포장기계수요처로서 2.9%

의 세어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전기제조업에서 포장·기계수요가 저조한 이유는 포장의 기계화가 곤란한 제품이 많고, 또 포장의 자동화가 가능한 분야는 이미 포장기계의 도입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전기제조업에 있어서 한개 사업소당 포장기계설비투자액은 비교적 저가격으로 간편한 기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1989년은 100만엔, 1990년 및 1991년 80만엔, 1992년 70만엔, 1993년 50만엔으로 낮으며, 금액도 감소 경향에 있다.

2. 앞으로의 시장성

이러한 업종은 경기의 변동 및 기후적 요인에 좌우되기 쉬우며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제조업에서는 해외생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있으며, 포장기계의 니즈는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업종의 설비상황을 보면 니즈에 합치된 보다 발달된 기계를 개발해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면 커다란 시장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또 정보화가 더욱 더 추진되고, 산업용에서 가정용까지 여러갈래에 걸쳐 정보관련기계의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포장기계수요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종이펄프·섬유·잡화품제조업

1. 출하액과 포장기계의 도입상황

종이펄프와 섬유·잡화품제조업의 출하액은 1993년 불황의 영향에서 가공지, 기타 종이펄프제품, 완구를 제외하고 전년보다 출하액은 감소

되고 있다.

종이펄프·섬유·잡화품제조업의 1993년의 총출하액은 22조5,351억1,800만엔이며, GDP의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1993년에 있어서 포장기계수요는 115억3,200만엔으로 포장기계총출하액의 2.8%를 차지하는데 불과했다.

또 한개 사업소당 포장기계설비투자액도 1989년부터 1991년까지는 연간 20만엔, 1992년부터 1993년에 걸쳐서는 연간 16만엔에 불과하다. 이것은 종이펄프·섬유·잡화품제조업에 있어서도 포장기계의 도입이 가능한 분야가 적고, 또 일부 特注機의 수요는 있지만, 저가격의 간이포장기계의 도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펄프·섬유·잡화품제조업에 있어서 근년의 포장기계수요는 주로 지제위생재료, 잡화품부분에 의한 것이다.

2. 앞으로의 시장성

일본의 종이펄프, 섬유산업은 성숙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시장도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또 국내메이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수입품과의 경합도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장기계설비는 갱신수요가 중심이기 때문에 신규수요는 적다. 단지 근년 비교적 호황인 종이펄프제조업에서는 지제위생재료부분을 포함한 수요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섬유제조업에 관해서는 수요의 확대를 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메이커가 신제품개발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 생각되는 잡화, 사진감광재료, 레코드(CD), 완구, 사무용품 등의 분야에는 안정된 포장기계의 수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K]